

##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 만찬

선거제도 개선이 지역구도 극복의 한 방법

선거를 치른 이후 당 지도부를 함께 보니 반갑습니다. 낙선한 분도 계시고 지도부를 떠난 분도 계셔서 어둡고 쓸쓸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보니 모두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. 낙선한 분도 계시지만, 당 전체로는 잘 됐습니다. 개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습니다. 특히 이용희 고문님, 당선되어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.

정성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홍의장님 행정수도 잘 되고 있습니다. 몇 가지를 신의장님이 말했는데 우선 입당원서는 우편으로 보내려 했는데 이 자리에서 쓰겠습니다. 그동안 실질적으로 입당을 한 상태였고 그러나 입당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있고 부담이 되어서 조용히 입당하려 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입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.

예전과는 달리 제가 총재가 아닙니다. 그러나 의사소통은 더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. 정책은 각 부처, 상임위에서 잘 협력하면 될 것입니다. 잘 다듬어서 체계를 세우면 잘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. 총리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고위당정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. 잘 돼 갈 것입니다. 그 외 정치적 사안에 대해 판단하거나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모든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결정할 것입니다.

그러나 과거처럼 제가 총재가 아니어서 정례 주례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모르겠습니다.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, 협의해 결정하겠습니다. 당장 비서실장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. 당부의 말이

있다면, 아직 지역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. 국민이, 유권자가 투표를 한 기준으로 보면, 상당히 그전과 다른 성과가 있습니다. 35%, 40%의 득표를 얻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. 영남지역의 그 같은 득표율은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은 것입니다. 그러나 의석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. 이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제도의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했습니다. 지금 선거제도가 국민 대의제도의 국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.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유권자를 탓하기 곤란합니다. 그 정도하면 어지간히 국민들은 해 주었습니다.

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. 당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는 현역의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책 결정과정과 당 운영과정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. 그래서 당력이 약한 지역에는 정책적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, 그 지역의 인재를 중히 쓰고 전면에 내세워 우리당이 전국적인 당의 면모를 갖추게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.